

문제적 인간 연산

2015. 7. 1 — 7. 26 명동예술극장



국립극단
SINCE 1950

작·연출
이윤택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

내용 (재)국립극단에서 관객들의 효과적인 연극 감상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자료는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룹 토론 등 공연 관람 후 수업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됨

대상 고등학생 이상

목 차

작품소개

- 시놉시스	-----02
- 주요 등장인물	-----04
- 배경분석	-----07
- 작품특징	-----09

작가/연출소개	-----12
---------	---------

토론답(안)	-----14
--------	---------

시놉시스

“틀렸군. 다 틀렸어! 너네들 붓 끝에 놀아나는 세상. 나는 미친 광대였노라.”

밤새 악몽에 시달리는 연산은 날이 밝으면 애첩 녹수의 품에서 지친 심신을 달랜다. 꿈속으로 찾아와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연산은 궁궐에서 수륙제를 지내려 한다. 하지만, 대신들은 유학과 선왕의 권계를 내세우며 왕의 명을 조목조목 거스르며 반대한다. ‘조선의 왕’의 위엄을 내세워 대신들의 입을 쏙 다물게 한 연산은 직접 왕 무당이 되어 궁궐 안에서 굿판을 벌린다. 이 과정에서 녹수는 신을 받게 되고, 폐비 윤씨의 녀이 녹수에게 전이 된다. 폐비의 혼을 받은 녹수는 자신과 아들 융을 죽이려 했던 성종의 후궁 엄귀인과 정귀인의 음모를 밝히고 이에 격분한 연산은 엄귀인과 정귀인을 철퇴로 때려죽인다. 인수대비는 손자 연산의 잔혹한 행동과 폭언에 충격 받아 쓰러져 죽는다.

윤씨의 고통스러운 죽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피 적삼을 손에 넣은 연산은 분노에 떨며 어머니의 원수들을 상대로 피의 학살을 시작한다. 폐비 윤씨의 죽음에 관여한 대신도, 방관한 대신도 모두 무차별적으로 처단하고 이를 말리는 내시 처선마저 죽인다. 광기에 휩싸인 연산은 환관 송재가 데리고 온, 어머니를 꼭 빼닮은 완산월을 보며 다시 여인과의 환락에 빠져든다. 이에 격분한 녹수는 완산월의 손목을 잘라 연산의 아침 수라상에 올린다. 이때 성희안과 박원종 무리들이 들이닥쳐 연산과 그의 무리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로써 연산의 혁명 시대는 막을 내린다. 문제적 인간 연산은 연못 깊숙이 몸을 맡긴 채 영(靈)으로 돌아간다.

토론

1. <문제적 인간 연산> 속 비극이 초래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 원인의 본질은 무엇일까?

활동

1. 연극이 무대 위에서 구현되기 위한 근간이 되는 희곡에는 배우들의 입을 통해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대사 이외에도 장면 묘사, 행

동 지시문 등이 자세하게 설명 및 묘사되어 있다. <문제적 인간 연산>의 첫 장면을 떠올려보고 이 장면을 구성하는 무대,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글을 작성하여 발표해보자.

2. 조선의 역사를 기록했던 춘추관의 사관이라고 가정하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을 골라 공연을 통해 목격한 연산군의 언행을 (사관의 입장에서) 글로 작성하여 발표해보자.

주요 등장인물

역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 연산을 다루는 역사극

역사책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왕들은 대개 '업적'이라는 잣대로 평가되고 기록된다. 성종의 적자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왕위에 올랐으나 폐위되어 결국 왕의 칭호도 받지 못한 채 '군'으로 남게 된 연산은 광기에 휩싸여 무차별적인 피의 숙청을 단행한 폭군으로 기억된다. <문제적 인간 연산>에서는 선과 악의 논리를 넘어, '인간' 연산의 이야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왜 연산이 그토록 잔혹한 폭군이 되었는지를 추적해본다.

연산

폭군의 이면에 가려진 인간 연산

연산은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손꼽히는 최악의 폭군이지만, 조선의 왕이기 이전에 어미를 잃은 아들이다. 성군이 되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기 보단 시와 그림 같이 왕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예술을 가까이 했던 연산의 주위엔 충직한 신하도 없다. 콧대 높은 삼사와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서는 대신들만이 버티고 있을 뿐이다. <문제적 인간 연산>에서는 비중 있게 그려지지 않지만 연산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임송재는 본래 흥악한 속내를 감춘 간신배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폐비 윤씨의 일을 연산에게 보고하여 갑자사화를 일으킨 장본인 임사홍이 임송재의 아버지다.) 극 중에서는 밤마다 연산의 꿈속으로 찾아오는 그리운 어머니의 넋을 달래기 위해 시작된 제의를 통해 애첩 녹수가 폐비 윤씨의 혼을 입게 되고, 연산이 어머니의 고통스러웠던 죽음의 과정을 소상히 알게 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연산은 어머니의 원수들을 상대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피의 숙청에 돌입한다. 이 작품에서는 이렇듯 폭정으로 일관한 잔혹한 왕의 모습 뒤에 숨어 있는 고통, 좌절, 그리움 등 연산이 감내해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가 그려진다. 연산역을 맡은 백석광 배우는 무용수 출신 배우답게 김남진 안무가와 협업을 통해 연산의 광기와 분노, 임금의 위엄과 결핍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녹수

왕의 여자, 어미 잃은 왕의 유일한 안식처

여인으로서의 치명적인 매력으로 연산을 사로잡은 녹수는 연산의 여자이자, 때론 엄마와 같은 여인으로 임금을 달래주는 안식처다. 악몽에 시달리는 연산을 달래주고, 폐비 윤씨의 뉘를 기리기 위한 제의를 통해 윤씨의 혼을 입어 연산에게 어머니 죽음의 경위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노래 하나로 천한 신분에서 기생이 된 인물답게, 자신의 장기를 살려 연산의 결핍된 모성애를 채워주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연산이 자신을 멀리하고 어머니와 닮은꼴인 완산월에게 빠져들자, 그녀의 손목을 내리쳐버리는 잔혹한 면모를 드러낸다. 이번 공연에서 녹수와 폐비 윤씨 1인 2역에 전격 발탁된 이자람은 <사천가>, <억척가>, <이방인의 노래>로 잘 알려진 소리꾼 출신으로 가인 기생이었던 본래 녹수의 이미지를 그려낼 것으로 기대된다.

👉 토론

2. 죽음을 맞이한 연산이 연못에 잠기는 마지막 장면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 활동

3. 연출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배역에 맞는 배우를 섭외하는 일이다. 이윤택 연출은 녹수 역에 소리꾼 이자람을 캐스팅 한데 대해, 원래 녹수가 가인 기생이었던 점을 꼽았다. 이 작품의 연출가가 되었다고 가정하여 연산과 녹수를 가상 캐스팅하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발표해보자.
4. <문제적 인간 연산>은 광기와 폭정으로 흐른 조선의 왕 연산군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인간 '연산'을 조명한다. 역사책을 통해 배운 조선의 왕 '연산'과 연극 <문제적 인간 연산>을 통해 본 인간 '연산'은 어떻게 달랐는지, 또 연산과 '광폭한 통치자'라는 공통분모를 가지는 이반 4세를 다룬 영화 <이반 대제>를 감상한 후 두 폭군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토론해보자.

활동-4 추가자료

● 영화 <이반 대제 1부(1944)>

감독: 세르게이 M. 에이젠슈타인

주연: 니콜라이 쉼카소브

내용: 극도의 잔혹함으로 인해 이반 뇌제로 불리는 이반 4세는 피로 얼룩

진 광기로 기억되는 조선의 연산군과 '광폭한 통치자'라는 공통분모를 가진다. 연극 <문제적 인간 연산>과 영화 <이반 대제 1부>를 통해 광기, 폭력으로 기억되는 역사 속의 두 폭군을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명동시네마 <이반 대제 1부> 무료상영

일시: 2015년 7월 14일(화) 19:30

해설: 이규영

(러시아 모스크바국립인문대학 문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영화 상영 전 약 30분간 해설 진행

장소: 명동예술극장 공연장

예약: 1644-2003(전화) www.mdtheater.or.kr(인터넷)

배경분석

어미 잃은 슬픔과 뒤틀린 광기가 빚어낸 비극

조선왕조는 고려에서 숭상되던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절대적인 가치로 내세웠다. 극 중 연산이 어머니 윤씨를 위한 수륙제를 지내겠다고 했을 때 대신들이 반대하고 나선 이유 중의 하나도 엄연히 불교행사가 금지되어있는데 어떻게 궁궐에서 제를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유교는 말 그대로 조선사회를 관통하는 정신이자 학문이자 종교였다. 연산의 아버지 성종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세조때 편찬이 시작된 경국대전을 완성한 것이다.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유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성종은 그 어떤 왕보다도 성리학을 발전시켰다.

엄격한 유교의 가르침과 관습이 지배하는 조선의 여인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투기를 일삼지 않는 것이었으며, 이는 왕실의 아녀자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성종과 인수대비의 마음을 오롯이 얻지 못한 윤씨는 도를 넘어서 '질투'로 인해 폐위되고 사약을 받기에 이른다. 하지만 당시 연산군은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했다. 성종 또한 연산이 친모의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유언을 남겼다. 한편, 성종 시대에 유배령을 받고 한껏 몸을 낮췄던 임사홍은 새로운 왕 연산의 총애를 받는 아들 임승재에 힘입어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한다. 흉악한 속내를 감춘 부자 간신배는 전국의 미녀를 수배하여 왕에게 바치는 채홍사로 임명되어 임금의 문란한 생활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임사홍은 지난날의 수모를 갚고 정치 판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폐비 윤씨의 일을 연산군에게 고한다. 어머니 죽음의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연산은 진노하여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펼친다. 어머니에 대한 복수가 발단이 되어 정치적 처단으로 이어진 대규모 살육(갑자사화) 이후로도 연산군의 광기는 그 끝을 모르고 더해져만 갔다. 연산군의 이러한 행보는 갑자사화가 과연 어머니 폐비 윤씨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토론

3. 유교 사상에 입각하여 윤씨가 폐위된 까닭을 설명해보는다면?

활동

5. 극 중에도 등장하는 '흥청망청'의 흥청이란 단어는 연산이 개인적인 욕정을 채우기 위해 채홍사를 기용하여 전국에서 강제로 징발한 기생의 호칭이었다. 최근에 개봉한 <간신>이란 영화에서는 이 부분이 대대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완산월 단 한명으로 연산의 여색을 표현해내는 '연극적인 경제성'이 발휘되었다.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연산과 비교되는 폭군 '이반 4세'를 소재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극적 장면을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어보자.

작품특징

시대와 장르를 초월하는 기념비적인 한국 현대연극

✧ 전통과 현대의 조합

대개 연극인들은 연극을 먼저 생각하고, 전통적인 요소를 접목하는 경우 부분적으로만 고려하는 경향이 짙다. 이와 달리, 연출가 이윤택 이름 뒤엔 흔히 “전통연희를 가지고 연극을 만든다”는 표현이 따라 붙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나라 장단이 가진 극적 요소를 찾아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이자람이 음악감독을 맡아 작품을 주도하는 전통연희에 전문성을 더했다. 이윤택과 이자람은 각각 연극과 판소리라는 고유의 양식 안에 갇히기 보단 연극과 판소리를 통해 동시대 예술을 표현하는 창조적인 예술가다. 굿, 판소리 속에서 연극성을 발견하여 공연예술로 만들어내는데서 통한 두 사람은 이번 작품에서 처음으로 함께 작업한다.

전통과 현대의 매력적인 조합은 작품 곳곳에서 발견된다. 구성진 전통소리와 세련된 전자음향, 고풍스러운 클래식 음악이 폐허가 된 궁궐을 모던하게 담아낸 무대 위에서 절묘하게 섞인다. 무대 또한 귀신들이 사는 세상과 인간이 사는 세상을 겹쳐 표현함으로써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현대적인 미학을 보여준다. 의상 역시 단순한 궁중복식의 재현을 넘어 동시대 유럽의 복식 스타일을 접목하여 전통미와 세련미를 살린다. <문제적 인간 연산>을 통해 전통적인 소재와 이야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이윤택 연출은 동시대성을 획득하여 관객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중심 화두로 삼고 있다.

✧ 역사극

한국 연극의 거장 이윤택은 <문제적 인간 연산>을 시작으로 <시골선비 조남명>, <궁리>, <혜경궁 홍씨>로 이어지는 인물 사극을 선보이며 흔히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편견을 뒤집어 그 속에 묻혀 있던 인물들을 환생시키며, 새로운 장르를 규정했다. 갈등의 해결, 옳고 그름의 문제 정리가 중요하지 않은 그의 연극에서는 인물에 대한 선악의 논리가 아니라 본성이 부각되며, 연약함을 품은 인간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드러난다. 하나의 인간으로 그려진 역사적 인물의 오래된 삶과 이야기는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에 감응을 준다. 이윤택 연출은 그 동안 선보인 인물을 통해 사회의 모습을 비추고, 개인의 삶

과 미시적 관계를 파헤쳤다. 이번 작품은 이윤택의 역사극 시리즈가 시작된 첫 작품으로, 주인공들은 역사라는 객관적 굴레를 벗어 던져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으로 생생하게 구체화된다. 이윤택 연출은 “연산은 나, 이윤택이다”라고 말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작가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역사극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역사적 인물은 영웅도 악인도 선인도 아닌 작가 자신을 투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이윤택의 첫 역사극 <문제적 인간 연산>이 탄생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말하는 역사극이란 역사가 아닌 인간을 다루는 것이며 그의 모든 것을 냉정하게 드러냄으로 해서 결국 그 역사 속 인간의 진실성이 인간적인 보편성이 되고, 그것이 동시대적 현실로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 총체극

연출가 이윤택은 몸과 소리와 말이 전통연희와 함께 어우러지는 독특한 양식의 공연을 보인다. 극 중 엄귀인과 정귀인이 주술을 외며 부르는 노래 ‘강실 강실 강실도령, 종금종금 종금새야, 쌍금쌍금 쌍가락지, 비알비알 비알발에’처럼 극 중 일부 대사들은 전통적인 운율을 지닌 노래로써 전달되기도 한다. 가야금, 장구, 징 등 국악기와 여기에 더해진 현대 음향의 풍부한 선율을 타고 녹수와 연산 사이의 따뜻함, 광폭해지는 연산의 무서운 광기가 따라 흐르며 이야기의 몰입을 돕는다. 연산 역할을 맡은 백석광 배우는 무용을 전공했던 재원으로 연기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과감한 움직임으로 연산의 광기와 분노를 표현한다. 작품에 녹아있는 종합예술 ‘굿’의 형식은 이윤택 연출의 다양한 실험의 출발점이며 한국적 정서와 공연 양식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산자와 죽은 자의 생사를 넘나드는 대화의 장이 펼쳐지며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진혼극이 펼쳐지는 <문제적 인간 연산>을 이 연출은 한마디로 ‘한 바탕 씻김 굿 같은 연극’이라고 말한다.

👉 토론

4. 등장인물들의 구성 및 역할과 관련하여 이 작품에 숨겨진 특징을 찾아 본다면?

👉 활동

6. 이윤택 연출은 “세계 연극 속에 한국 연극으로서 한국적이지만 현대적인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출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적 인간 연산>이 세계의 관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가감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공연을 보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토론해보자.

7. <문제적 인간 연산>이라는 제목은 역사 속 인물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해보는 작품으로, 일곱 글자의 제목을 통해 작품의 방향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자신이 작가로써 역사극을 집필한다면, 먼저 어떤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써 보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그 역사 속 인물을 다룬 희곡의 제목과 함께 발표해보자.

작가/연출 소개

"연산은 나, 이윤택 이다"

시인, 극작가이자 연출가 이윤택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예술감독

1986년 부산의 소극장들이 문을 닫던 시절, 그는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하며 가마골소극장의 문을 열었다. 군부독재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온 그는 연극을 통해 다양한 실험과 지적 언어로 세상에 항거했으며 극작, 연출, 연기훈련, 무대술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작업을 통해 1990년대 한국 실험연극의 기수로 등장, 한국연극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그는 90년대 각종 연극상을 휩쓸면서 한국연극을 평정했으며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시골선비 조남명> 등 우리의 말과 몸을 통해 관객들과의 소통을 지속했다. 그는 연극작업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시, 평론, 시나리오, TV드라마, 신문 칼럼을 쓰는 문학가이면서 뮤지컬, 무용, 축제극 연출 등 다방면에서 최고의 연출가로 손꼽히는 전 방위 예술가이다. 또한 1994년 우리극연구소를 설립, 연기훈련을 통해 연기론의 체계를 잡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 등지에서 연기 워크숍을 하면서 연희단거리패 메소드를 발전시키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연극예술학과 초빙교수, 국립극단 예술감독, 동국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를 지냈다. 1999년부터는 밀양연극촌에서 연극공동체 운영으로 연극제작과 연기훈련에 대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밀양연극촌, 서울 게릴라극장, 김해 도요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연극연출작

죽음의 푸가 • 산씻김 • 카프카의 심판 • 시민K • 오구-죽음의 형식 • 피의 결혼 • 바보각시 • 허재비놀이 • 흥동지는 살아있다 • 파우스트 • 원전유서 외 다수

1986 대중상 각본상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

1989 한국평론가협회 최우수예술가상 <오구-죽음의 형식>

1990 영희연극상 <시민K> / 동아연극상 작품상·연출상 <청부>

1991 서울연극제 대상 <길 떠나는 가족>

- 1991 대중상 각본상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 1994 서울연극제 연출상, 동아연극상 작품상·연출상 <비닐하우스>
- 1995 대산문학상 희곡상, 동아연극상 대상·희곡상, 백상예술상 대상·작품상
<문제적 인간 연산>
- 1996 서울연극제 연출상 <햄릿> / 올해의 연극 베스트3, 비평가 협회상
<어머니>(극작)
- 1997 국립극장 올해의 연출가상 <파우스트>
- 1998 서울국제연극제 작품상·연출상, 올해의 연극 베스트5 <느낌, 극락 같은>
- 1999 백상예술대상 연출상 <느낌, 극락같은>
- 2001 서울공연예술제 대상·연출상 <시골선비 조남명>
- 2002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2005 동아연극상 희곡상 <아름다운 남자>
- 2006 동아연극상 작품상·연출상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 2008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동아연극상 대상·연출상 <원전유서>
- 2009 동아연극상 무대미술기술상 <방바닥 굽는 남자>

토론

5. 작가/연출 이윤택이 <문제적 인간 연산>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활동

8. 이번 작품은 이윤택 연출이 직접 쓰고 연출하는 작품이다. 이 연출은 한 인터뷰에서 <문제적 인간 연산>이 계속되길 바라며,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연출하고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극작과 연출을 동시에 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의견을 발표해보자.
9. 작가 이윤택은 “희곡은 일상 속에 흐르는 여러 가지 극성들을 재발견해서 그것을 재구성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희곡이란 민족의 집단무의식이고 일상 속에 있는 극성을 훑쳐오는 것이다”라고 했다. 희곡에 대한 이윤택 연출의 의견을 바탕으로 “희곡”의 정의와 역할에 생각해본 후 의견을 발표해보자.

토론답(안)

1. 연극 <문제적 인간 연산>에서는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유사하게 연산군이 폐비 윤씨의 혼을 입은 녹수를 통해 어머니가 죽음을 맞이한 끔찍한 과정을 소상히 알게 되면서,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시작된 것으로 그려진다(<햄릿>에서는 선왕의 유령을 통해 아버지가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기에 이 비극은 일차적으로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이 복수극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정의 결핍을 녹수에게서 찾으려고 하던 연산이 녹수를 통해 어머니의 죽음과 마주했을 때 느꼈을 분노와 슬픔의 크기는 공감하기 어렵지 않다. 한편, 연산군의 역사를 기록한 <연산군 일기>에 따르면 연산은 상당히 많은 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극 중에서도 연산은 심지어 “시를 쓰는 인간들은 현실적 욕망에 묶이지 않지”라고 말하며 율시를 지어 올릴 수 있는 ‘문학적’인 인재들을 등용하려 한다. 대신들은 반대로 “전하의...학문이 완성되지 못했으니 신 등의 말을 따르십시오”라며 학문보다는 예술을 가까이 하는 왕을 가르치려 든다. 사실, 정통성을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왕에게 예술은 요구되거나 허락된 덕목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슬픔에 더해 이렇듯 감성적인 정서를 가진 연산군과 유교사상을 앞세워 죽은 어머니를 위한 망제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대신들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비극을 또 다른 차원에서 보게 해주는 이 부분에 대해 이윤택 연출은 “폐비 윤씨, 융, 내시들로 표현되는 감성적이고 초월적인 여성주의와 대신들이 표현하는 이성주의, 합리주의, 현실주의의 대립관계를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 조금 더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생각해보면, 폐비 윤씨의 일은 사실 구실일 뿐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서며 왕권에 도전하는 훈구와 사림세력들을 몰아낸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2. 녹수는 단순히 연산의 후궁이 아니다. 모성에 결핍에 시달리는 연산이 그리운 어머니를 느낄 수 있는 안식처다. 연산이 악몽을 꾸다가 ‘엄마’를 부르며 잠이 깨자 녹수는 연산을 꼭 안아준다. 마치 어린 아들을 달래듯 “비야 비야 오지마라 우리엄마 시집간다. 우리엄마 시집 갈 때 가마꼭지 물들으면 초록치마 얼룩진다”라고 따뜻한 목소리로 노래 부르며 옷을 입혀

주는 녹수는 천상 어머니의 모습이다. 그렇게 녹수에게서, 또 어머니의 모습을 꼭 닮았다며 송재가 데려온 완산월에게 빠져들며 어머니의 흔적을 찾지만, 연산은 끝내 그녀들의 품속에서 온전한 어머니를 찾지 못한다. 이성을 잃은 연산은 유일하게 진심을 다해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바른 말을 아끼지 않는 충신 김처선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결국, 그 광기의 끝에서 연산 자신도 죽음과 마주하게 된다. 첫 장면에서 탯줄로 감긴 맨몸으로 연못에서 기어 나온 연산은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하는 연못 속으로”(이윤택의 연극적 문법에 관한 고찰, 김미도, 2012, 한국연극학) 들어감으로써 광기의 마침표를 찍고 다시 그리운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된다.

3. 유교는 500여년간 조선 사회를 지탱시켜준 절대적인 사회 윤리였다.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 등 핵심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도리를 가르치는 삼강오륜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며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조선 시대 당시 유교적 잣대는 특히 여성에게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칠거지악이라고 하여 시집간 여인이 시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질투하거나, 심한 병을 앓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도둑질을 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쫓겨났다. 왕실의 권력, 법도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윤씨는 성종이 자신이 아닌 후궁들에게 더 애정을 쏟자, 이를 질투하여 성종의 얼굴에 손톱자국을 냈고, 이것이 폐위로 이어진 경우다.
4. 말과 소리, 몸이 어우러져있으며 전통적인 요소를 가득 담고 있는 총체극 <문제적 인간 연산>은 흥미롭게도 형태, 구조적 측면에서 소위 ‘종합예술’로 평가되는 고대 그리스 비극과 통한다. 연산과 사사건건 맞서는 대신으로 등장하는 배우들이 코러스 역할을 맡고 있다. 본래 고대 그리스 비극 작품 상연에 있어 코러스는 작품 전반을 가로지르며 연기와 가무 등을 담당했다. 다양한 극 속 인물로 분하고, 이야기를 설명해주거나 등장인물들과 관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등 작품 안팎으로 상당히 비중 있게 등장하는 존재였다. 고대 그리스 비극에 뿌리를 둔 코러스는 이번 작품에서처럼 현대극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과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다.

5. ※극작수업Ⅵ 이윤택 p.5-7 중 발췌

<문제적 인간 연산>이 제 첫 역사극이었는데...역사극을 쓰도록 계기를 마련해준 사람이 유인촌 배우였어요. 1990년대 초에 배우와 연출로 만났 적이 있는데, 그가 제게 역사극을 하나 하자고 제안을 하더군요...무엇을 할 것인가 의논 하던 중에 제가 연산에 대해 하자고 했어요. 왜 연산이냐, 연산은 너무 많이 다뤄 식상한 인물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지요. 그런데 저는 식상한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제 임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식상이란 무엇이냐, 누구나 다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역사극이라는 것이죠...연산은 어떤 인물이냐...연산은 나, 이윤택이라고 대답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역사극의 출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사적 인물은 영웅도 악인도 선인도 아닌 작가 자신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거죠. 더도 덜도 말고 딱 작가 자신이 갖고 있는 만큼의 지식과 인품이 반영되는 것, 즉 나를 투영한 인물이 작품 속에 드러나는 것이니까 작가 자신이 바로 역사극이 되는 것이죠...

※ 토론답(안)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여러 답안 중 한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가능한 답안을 제안하는 것이 좋음.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번지 (재)국립극단
1 Seogye-dong, Yongsan-gu, Seoul, Korea(140-827)

100-021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100-021)

Tel. 1644-2003